



일본 인구추계 결과,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기 인구추계 결과 2048년 인구가 1억 명 이하로 감소하고 2060년 고령자의 비율이 40%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2060년 14세 이하 인구는 791만 명으로 2010년보다 53% 감소하는 반면,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18만 명이 증가(18%)하여 3,46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 -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23%에서 2060년 39.9%까지 상승하여 50년 후에는 5명 중 2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.
- 2060년 일본 인구는 2010년보다 30% 감소하여 8,67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 감소와 저출산·고령화 문제가 일본 경제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.
 - 2010년 8,173만 명이던 15~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7년 후인 2027년에 7,000만 명으로 감소하고, 50년 후에는 4,418만 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.
 -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력을 유지하려면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함.
 - 평균 수명도 남성은 84.19세, 여성은 90.93세로 각각 4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금, 의료, 개호 등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향후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일 것으로 지목됨.
- 출생률은 제2차 베이비부머(1971~1974년생)들의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2010년 1.39명으로 개선(2005년 1.26명) 되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1.3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 - 이러한 저출산·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체 인구는 2010년 1억 2,806만 명에서 2048년 1억 명, 2057년 9,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(산케이신문, 니혼게이자이신문, 마이니치신문, 요미우리신문, 일본 통계청 1/31 등 뉴스종합)